



보도	2026.3.4.(수) 14:00	배포	2026.3.4.(수)	
담당부서	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 (02-3145-7120)
		담당자	부국장	손인호 (02-3145-7125)
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유희준 (02-3145-7420)
		담당자	부국장	김송범 (02-3145-7415)
	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변재은 (02-3145-8780)
		담당자	팀 장	조강훈 (02-3145-8782)
	전자금융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심은섭 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이승훈 (02-3145-7154)
	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최강석 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 (02-3145-8162)
	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전홍균 (02-3145-7100)
		담당자	팀 장	고병완 (02-3145-7102)

## 2026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

### I 업무설명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2026.3.4.(수)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6년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- <세션 I>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강형우 교수의 「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 및 시사점」 발표 이후, 금융감독원의 2026년도 디지털·IT 부문 감독·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
- <세션 II>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 등 주요 업권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주요 감독·검사 이슈를 논의하고, 업계의 제언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(場)을 마련하였음

### < 2026년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>

- (일시·장소) '26. 3. 4.(수) 14:00~16:10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- (참석자)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

## Ⅱ 디지털·IT 부문 부원장보 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,
  - 금융의 디지털화와 AI 혁신 등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으나, 정보 유출, 전산 장애가 빈발하고 클라우드·S/W공급망을 통한 IT리스크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,
  - '26년도 디지털·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“소비자 보호”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
- 이를 위해, '사후 조치' 위주였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'사전 예방'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
  -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원력(Resilience)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하였음
- 또한, AI의 미래 과급력을 고려하여 금융 분야 AI 혁신을 다각도로 적극 지원하고,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·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·활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,
  - '혁신'은 '책임'과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에 AI 위험관리, 윤리 의식, 내부 통제 등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하였음
- 아울러,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,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면서,
  - 특히,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하였음
- 끝으로, 1,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·전산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,
  -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차질없는 준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시장감시 역량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음

### Ⅲ 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내용

- ① <IT검사현안 간담회>에서는 최근 IT사고를 유발한 IT기본통제 위반 사례 및 10대 금융 IT리스크 등을 논의하는 한편, 과태료·과징금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,
- ② <전자금융업권 간담회>에서는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,
- ③ <가상자산 현안 간담회>에서는 2단계 입법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자율규제 체계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였음

### Ⅳ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감독·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,
  -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·검사를 위해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계획임

#### 업무설명회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30 (30분)	• 스탠딩 티타임	
<b>&lt;Session 1&gt; 디지털·IT 부문별 감독·검사 방향</b>		
14:30~14:35 (5분)	• 인사 말씀	이종오 부원장보
14:35~14:50 (15분)	•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 및 시사점	고려대 강형우 교수
14:50~15:20 (30분)	• 디지털·IT 감독·검사 방향 (10분)	디지털금융총괄국 국장
	• 전자금융업 감독·검사 방향 (10분)	전자금융감독국 국장
	• 가상자산 감독 방향 (10분)	가상자산감독국 국장
15:20~15:30 (10분)	•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	참석자
<b>&lt;Session 2&gt; 라운드 테이블</b>		<b>※ 분야별 장소 이동</b>
15:40~16:10 (30분)	업권별 라운드 테이블	각 부서장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**□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**

- 통합관제시스템\* (‘26.2월 가동)을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 수집·적시 전파하여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유도
  - \* 통합관제시스템 (FIRST : Financial-IT Incident Response Surveillance control-Tower)
-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·평가를 내실화하고, 보완 조치 계획 수립·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시 강화
- 보안 통제 점검 등을 통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高위험사를 선별하여 핀포인트·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
- 「제3자 IT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」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IT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종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
-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CEO·CISO 보안책임 강화,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

**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**

-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\*」 마련
  - \* 사고발생 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절차, 신속 복구 체계,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
- 디지털 복원력 강화를 위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발굴·조치가 가능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 및 버그바운티(신고포상제) 내실화
-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상호금융 등 중소기업권역 금융사와 대체거래소,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

## □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·데이터 활용 유도

- AI 도입·활용 주기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'위험관리 프레임워크(AIRMF)' 제시
- AI 활용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한 '윤리지침' 제정
-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·사용할 수 있도록 결합 품질 및 재사용 등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

## □ 전자금융업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 경영 확립

-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,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
-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상향, 소멸시효前 안내 강화, 최소 충전 기준 하향 등 선불 영업 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
- 조치 요구권('25.12월 「전금법」 시행)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 지도

## □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

- 「디지털자산기본법」(가칭) 및 하위 규정 제정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확립
-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·거래지원 공시 체계 마련
-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\*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

\* 가두리·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,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